

“研究開發에 매진할 수 있도록 與件과 政策支援 강화돼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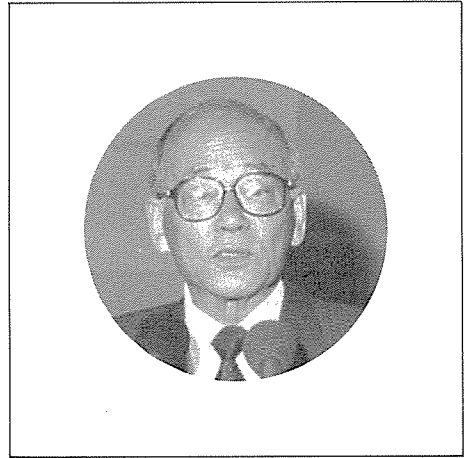
존경하는 전국의 科學技術人 여러분.

오늘 第24回 「科學의 날」을 맞이하여 盧在鳳국무총리님을 비롯한 과학기술계 元老, 先輩, 그리고 내빈 여러분을 모시고 우리나라 과학기술의 미래의 꿈이담긴 이곳 大德연구단지에서 기념식을 갖게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여러분께서 잘 아시는 바와같이 韓國科學技術團體總聯合會가 지난 1968년에 과학기술의 중요성을 인식하여 「科學의 날」을 主唱한 이래 「科學의 날」은 5회까지 科總이, 6회부터 지난 20회까지는 정부주도로 科學技術處가 기념행사를 마련해 왔습니다. 그러나 21회부터는 민간주도의 여망에 따라 科總이 다시 주관하게 되어 그 의의가 더욱 깊다고 하겠습니다.

光復이후 오늘에 이르기까지 40여년동안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우리 산업과 과학기술이 놀라울 정도로 발전하였고, 경제발전과 정치, 사회, 문화 등 각 분야에 걸쳐 경이적인 성장을 이룩할 수 있게 된것은 여기 모이신 과학기술인 모두의 숭고한 봉사정신의 발로와 노력의 결정이라고 하겠습니다. 특히 오늘을 맞이하면서 지금이 시각에도 연구실과 강단에서, 그리고 전국 각지의 산업현장에서 새로운 지식의 탐구와 개발에 헌신하고 계시는 과학기술인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다시한번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정부당국이 그동안 과학기술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함과 동시에 과학기술진흥의 당위성을 온 국민에게 심어주고 기술개발투자확대와 고



科總회장

權 彥 赫

급두뇌양성 그리고 각종 산업기술 혁신을 위한 제도개선 등을 착실하게 뒷받침해온 점에 대하여도 이자리를 빌어 높이 평가하는 바입니다.

존경하는 과학기술인 여러분!

여러분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는 지금 과거와 같이 국제경쟁력을 계속 유지함으로써 선진 대열에 진입할 수 있으나, 그렇지 않으면 중남미 제국들처럼 선진국의 문턱에서 정체와 좌절의 늪으로 퇴보하느냐의 갈림길에 서있습니다. 한편 우리는 해방이후 온갖 시련과 갈등을 겪으면서 그동안 이룩해 놓은 20세기 후반의 경제발전과 최근에 추진되고 있는 민주화 과정을 바탕으로,

우리나라가 2000년대에는 경제, 사회, 문화 각 부문에서 선진복지사회로 진입하고자 하는 염원을 안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더 말할 나위없이 이러한 염원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과학기술의 도약만이 관건이 됩니다. 모든 국민이 과학기술의 중요성을 깊이 인식하고 과학적인 사고와 행동을 갖게 될 때 과학기술발전의 기반이 튼튼해지고 우리 사회가 명실상부하게 선진화될 수 있다고 믿습니다.

그러나 과학기술발전을 위해 제반여건은 날로 어려워만 가고 있습니다. 특히 선진국은 선진국대로 보호주의 장벽을 더욱 공고히 하면서 제품개발과 관련된 기술이 통제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특허권, 저작권 등 知的所有權 보호의 강화로 인하여, 기초지식마저 습득하기 어려워지고 있는 형편입니다.

이러한 상황속에서, 결국 앞으로 우리는 우리들 스스로의 힘으로 기술개발과 수출증대를 통한 경제발전을 이룩해야 한다는 어려운 현실에 직면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국가적 차원에서의 최우선적인 과학기술시책이 절실하게 요구된다고 하겠습니다.

다행스럽게도 최근 科學技術處에서는 과학기술의 획기적 발전을 앞당기기 위하여 기초과학분야연구를 체계적, 합리적으로 활성화하는 방안을 수립하고 이를 적극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기술발전의 기저가 되는 기초연구를 담당하여야 할 大學을 중심으로 참신한 연구개발풍토가 조성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점에서 우리 韓國科學技術團體總聯合會도 기초연구와 인력양성의 중추기관인 대학과 학회에 대한 과감한 투자확대와 지원을 유도하여 대학의 참다운 연구분위기를 조성하는 동시에 學·研·産협동의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지원 방안을 강구할 수 있도록 정부와 힘을 합하여 선도적인 역할을 담당해 나갈 것입니다. 아울러 과학기술인 여러분께서도 과학기술 위주의 환경과 여건이 조성될 수 있도록 능동적인 자세로 국가발전의 초석이 되어주시고 견인차의 역할을 수행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마디로 오늘의 냉엄한 국제사회질서는 우리 모든 과학기술인에게 국가와 사회에 대한 한없는 봉사과 기여를 요청하고 있으며 국가발전의 주체로서의 확고한 위치를 재확인해주고 있다고 믿습니다.

특히 우리 모든 과학기술인들은 과학기술의 궁극적 목표가 「과학기술인의 信條」에 잘 나타나 있는 바와 같이 인류의 繁榮과 世界平和를 위한 공헌이라는 사실에 입각하여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제반환경을 능동적으로 개선함은 물론 복지사회 구현의 尖兵이라는 사명감을 언제나 견지하여야 하겠습니다.

이 시점에서 우리 백만 과학기술인은 우리의 살길이 오직 기술혁신을 통한 경제사회발전이라는 사실을 재확인하고 스스로가 歷史發展의 구심체라는 소명을 가지면서 제24회 과학의 날을 맞이하여 국가와 민족이 우리에게 바라는 바가 무엇인가를 겸허하게 되새겨 봐야 하겠습니다.

또한 모든 국민의 의식속에 창조와 능률 그리고 합리의 정신이 심어지고 과학자와 기술자 그리고 기능인이 함께 대우받는 소망스런 풍토가 이룩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는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사회적 환경, 특히 국민들의 과학에 대한 이해와 인식의 地平을 넓혀나가는데도 각별한 노력을 경주하여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정부당국에서는 우리과학기술인들이 확고한 의욕을 가지고 연구개발에 매진할 수 있도록 분위기를 조성하는데에도 정책적인 뒷받침을 가일층 강화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그동안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韓國과학기술의 오늘이 있기까지 대학과 연구개발의 현장에서 헌신적인 노고를 다해오신 元老·先輩 과학기술인을 비롯한 科學技術處, 言論관계자 여러분과 오늘 영예의 「大韓民國科學技術賞」과 「有功褒賞」을 받으시는 수상자 여러분께 축하의 말씀을 드리면서 여러분의 건강과 여러분의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기를 충심으로 기원합니다.